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배포시	배포	2025.1.16.(목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8180)
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

□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인 1.16일(목)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
○ 이복현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,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 진작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,

- 현재 금리인하 기대 및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·재정적자·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된 만큼
- 금융시장·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,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

① 가계·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,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

- 연초 수립된 금융사 대출운용 계획을 종합 점검하여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강구

②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, 실수요자 및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 도모

※ 한편,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5조원 증액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저신용 자영업자, 지방 중소기업 등에 적시 공급되도록 점검

- ③ 급격한 환율변동에도 감내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*하고 자본비율을 관리하여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

* '24.11말 국내은행 단기외화차입비중은 19.7%로 '97년 외환위기(87%), '08년 금융위기(73%)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

- ④ 부실PF에 고착된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수 있도록 부실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충당금 적립 및 현장점검 실시

- 부실채권 경·공매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